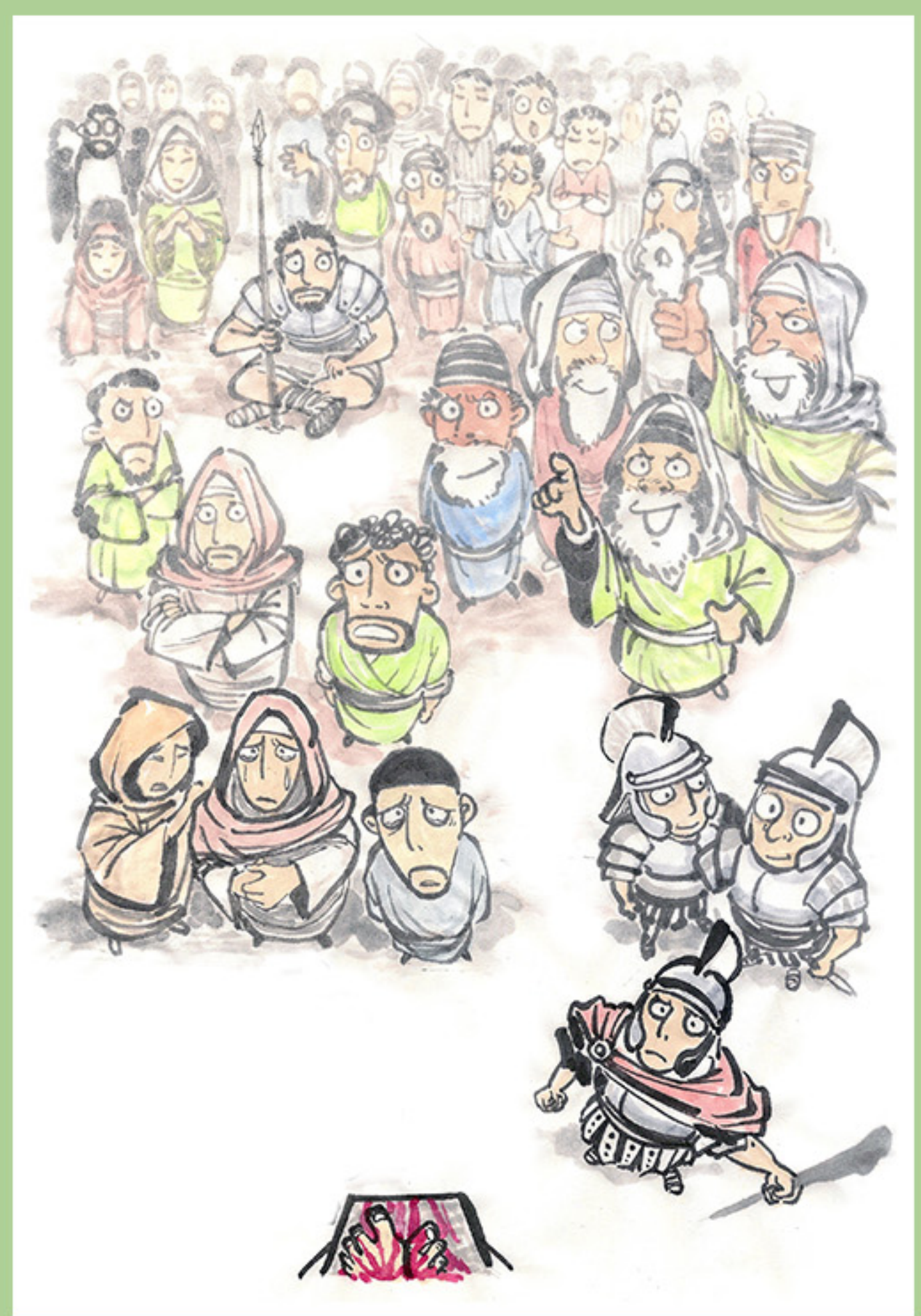




예수님 이야기

⑨ 십자가와 부활

(웅성 웅성)

사 람 들 저기 온다! / 저기 온다 와! /
저 사람 봐라! 저기 거짓말쟁이 예수 아냐?

남 자 1 메시아라더니 아무 것도 아니었잖아?
쫓쫓.. 내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.

남 자 2 저런 인간은 반드시 사형시켜야해!

남 자 3 (크게 외치며)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,
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민족을 혼란케하는
저런 죄인은 죽어야 된다고!
(목소리 점점 커진다.)

사 람 들 십자가에 못박으라~! 십자가 못박으라~!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~!
아!! 못 박아라!!
(웅성웅성)

사 람 들 니가 만약 그리스도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. /
남을 구원할 줄 알면서 자신은 구원을 못하다니.. 헛하하하.. /
진짜 사기꾼이구만.. 하하

예 수 님 (예수님 사람들을 보시면 하시는 말씀)
주님,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.
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.

(잠시 침묵)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....

나 레 이 셴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아침,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
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귀한 기름인 향품을 가지고
무덤에 가고 있었습니다.

여 인 1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돌문을 옮겨줄 수 있을까?
아.. 우리가 옮기기에는 너무 커보이던데...

여 인 2 엥? 저기 좀 봐! 돌문이 열려있어! 누가 벌써 왔나???



나 레 이 션 무덤 안으로 들어 간 여인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.

그때! 바로 바로 바로 그때! 밝게 빛나는 두 사람이 옆에 나타났습니다. 여인들은 너무 놀라 엎드렸습니다.

빛나는사람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이런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? 그분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.

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으니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. 이 말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어라.

나 레 이 션 여인들은 빛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. 여인들은 크게 놀란 채로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에서 나와 엄청 기쁘면서도 또 완전 두려워하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려고 제자들에게 뛰어갔습니다.

무덤은 비었고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.